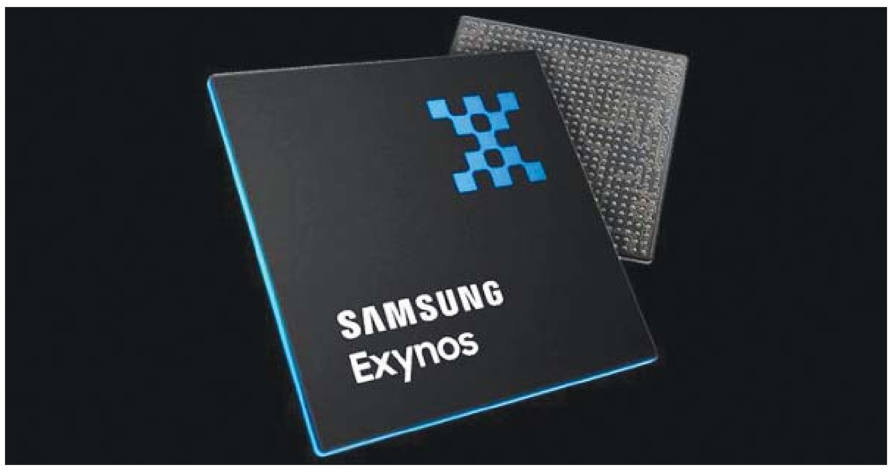
퀄컴칩·메모리값 상승… 삼성, '엑시노스' 구원투수 될까

엑시노스 2700 성능평가서 우위
CPU·GPU·AI·전력효율 앞서
외부 AP 매입액 7조4383억
자체칩 확대 땐 원가 절감 기대
양산 성능·2나노 수율이 관건



삼성전자 엑시노스 심벌.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차세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 2700'이 내부 성능 평가에서 퀄컴의 차세대 AP보다 높은 성능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모리와 외부 AP 가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갤럭시S27의 엑시노스 탑재 확대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MX사업부가 최근 차세대 AP '엑시노스 2700'과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6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내부 벤치마크에서 엑시노스 2700이 CPU와 GPU, 인공지능(AI), 전력 효율 등에서 앞선 것으로 전해졌다.

긱벤치 6.5 기준 CPU 멀티코어 성능은 엑시노스 2700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6세대보다 19%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최상위 제품으로 거론되는 프로 모델과 비교해서도 9.5% 높았다. GPU는 최대 성능에서 프로 모델을 5% 앞섰고, 2.5W(와트) 저전력 환경에서는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 대비 각각 24%, 22% 높은 성능을 기록했다. AI 답변 생성 속도도 프로 모델보다 18% 빨랐고, 전력 소모 측정치는 161mA로 프로 모델의 185mA보다 12.7% 낮았다.

최근에는 엑시노스 2700으로 추정되는 엔지니어링 샘플도 긱벤치 AI 데이터베이스에서 포착됐다. 해당 시험용 칩의 프라임 코어는 최대 4.24GHz로 작동했다. 지난 4월 포착된 시험용 칩의 클럭이 2.30~2.88GHz 수준으로 제한됐던 것과 비교하면 동작 속도가 크게 높아졌다. 다만 시험용 칩의 고클럭 구현만으로 실제 양산 제품의 성능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엑시노스의 경쟁력 회복 여부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삼성전자 MX사업부의 원가 부담이 자리 잡고 있다.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 퀄컴과 미디어텍 등에서 사들인 모바일 AP 규모는 7조438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6% 증가했다. DX부문 전체 원재료 매입액의 17.9%에 해당한다.

퀄컴의 가격 인상 움직임도 원가 부담 요인이다. 퀄컴은 오는 9월부터 스마트폰용 칩 가격을 두 자릿수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최고경영자(CEO)도 지난 7월 반도체 업계의 비용 상승을 언급하며 제품 가격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메모리 가격 상승도 부담이다. 삼성전자의 상반기 외부 모바일 메모리 매입액은 5조426억원으로 집계됐다. 모바일용 메모리 가격은 지난해 연간 평균보다 약 211% 상승했다. 해당 수치는 외부 업체에서 조달한 물량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MX사업부가 DS부문에서 공급받는 내부 거래 물량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엑시노스 2700이 양산 단계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갤럭시S27 시리즈에서 탑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자체 AP 비중을 높이면 퀄컴 등 외부 업체에서 구매하는 AP 물량을 줄여 원가 부담을 낮출 여지가 생긴다.

시스템LSI와 파운드리에도 긍정적이다. 엑시노스는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가 설계하고 파운드리사업부가 생산한다. 엑시노스 2700은 삼성 파운드리의 2세대 2나노 공정인 'SF2P'를 기반으로 생산될 것으로 알려졌다. 갤럭시S27 탑재 물량이 늘어나면 시스템LSI의 AP 사업 확대와 함께 파운드리의 첨단공정 물량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관건은 양산 단계에서의 성능과 수율이다. 현재 알려진 성능은 내부 테스트와 엔지니어링 샘플을 기반으로 한 만큼 실제 스마트폰에 탑재됐을 때 같은 수준의 성능과 전력 효율을 유지할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삼성전자도 갤럭시S27의 AP 구성이나 엑시노스 2700의 탑재 범위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엑시노스 2700의 경쟁력은 갤럭시의 원가 부담뿐 아니라 삼성의 2나노 공정 경쟁력과도 연결되는 문제"라며 "내부 벤치마크보다는 양산 단계의 수율과 실제 제품에서의 발열·전력 효율 등이 갤럭시S27 탑재 확대를 가늠할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비거주 1주택 종부세 손질 전세 숨통·집값 자극 '딜레마'

기본공제 9억 상향 조정 검토
현행 12억 수준 복원도 거론
세 부담 완화 땐 전세 감소 제동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 방안을 일부 손질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세 부담을 완화하면 집주인의 실입주를 줄여 전세 매물 감소를 막을 수 있지만, 주택을 처분할 유인까지 약해져 매매 매물이 줄고 집값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어서다. 25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정부안인 9억원보다 높이고,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 3일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비거주 주택의 보유 부담을 높여 실거주나 매도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전근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일률적으로 세 부담을 높인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정부안에도 학교·직장·질병 등에 따른 비거주 기간을 일정 요건 아래 최대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적용 요건과 기간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완론에 힘이 실린 배경에는 임대차시장 불안 우려도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입주하려는 집주인이 늘어나는데, 이는 전세 물건을 줄이는 요인이 된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지난 3일 이후 2만1800건에서 2만402건으로 1.9%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의 매매 매물은 늘어난 반면 전세 물건은 줄면서 두 시장이 정반대 흐름을 보였다. 같은 기간 서초구에서는 매매 매물이 12.7% 늘어나는 동안 전세 물건이 5.6% 줄었다. 송파구에서도 매매 매물은 12.7% 증가했지만 전세 물건은 10.9% 감소했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부동산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갖고 있는 물건이 한 건에 그칠 만큼 전월세 매물 씨가 말랐다"며 "일단 직접 거주해 요건을 채운 뒤 주택을 팔겠다는 집주인이 많다"고 전했다.

전세 물건이 줄면서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8월 둘째 주 0.20%, 셋째 주 0.19% 올랐다.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같은 기간 2주 연속 하락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면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입주할 필요성이 줄어 전세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 문제는 매도 유인이 약해진다는 점이다. 보유 부담 때문에 나온 매물이 회수되거나 매도자가 호가를 높인 채 시장을 지켜보면 매매가격이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성채리 수습기자 cr56@

metro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171954호(2026.02.26~2027.02.25)